

광주FC, 코리아컵 준결승 길목 성남 꼭 잡는다

'알바니아 특급' 아사니 전면 내세워 공격 축구로 성남 골문 공략 K리그1 순위 싸움·아시아챔피언스리그까지 분위기 상승 노려

세 마리 토끼를 쫓고 있는 광주FC가 '코리아컵' 사냥에 나선다. 광주FC가 17일 오후 7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성남FC를 상대로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8강전에 나선다. 광주FC는 올 시즌 리그 순위 싸움은 물론 코리아컵, 아시아챔피언스리그까지 소화해야 한다. 지난주 울산HD, 인천유나이티드와 연달아 리그 일정을 소화

했던 광주FC의 시선은 이제 코리아컵으로 향한다. 지난주 울산전 4연승에 성공한 광주FC는 홈에서 전개된 인천과의 경기에서는 분위기를 살리지 못하고 0-2패를 기록했다. K리그1 8위에 자리한 광주FC는 코리아컵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겠다는 각오다. 코리아컵 우승컵을 노리고 있는 광주FC는 이번 8강 전 승리를 통해 리그 순위 싸움을 위한 분위기 상승

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성남은 최근 5경기 연속 무승(4패 1무)에 그치면서 K리그2 12위까지 떨어졌다. 5경기를 하면서 무려 16골이나 내주는 등 수비가 흔들리고 있다. 광주FC는 숨을 고르고 있던 '알바니아 특급' 아사니를 전면내세워 성남의 험거운 방패 뚫기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 시즌 33경기에서 나와 7골 1도움을 기록했던 아사니는 스완지시티로 떠난 엄지성의 이적 공백을 메울 적임자다. 올 시즌에는 교체 출전으로 1경기만 소화했지만 알바니아 대표로 좋은 활약을 펼쳤다. 아사니는 유로 2024에 알바니아 대표로 나서 예선 전 경기를 소화했고, 크로아티아 전에서는 1도움을 올리기도 했다.

이정호 감독도 "현재 상당히 몸을 끌어올린 상태다"며 아사니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이정호 감독은 매 경기 출전 엔트리에 변화를 주면서 경쟁과 로테이션 두 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비슷한 기량의 선수들이 조직력과 전술에 맞춰 매 경기 다른 조합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번 코리아컵은 조성권, 오후성, 이승은, 브루노 등 앞서 많은 경기에서 나서지 못했던 선수들의 어필 무대가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경기에서 나서지 않았던 박태준과 이강현도 출격을 준비하는 등 정규리그와 같은 전력 구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광주FC는 성남의 간판 공격수인 후이즈와 이정협을 봉쇄하면서 5경기 16실점의 수비를 풀어야 한다.

리그 경기에서 기록을 보이고 있는 광주FC는 9월부터 아시아챔피언스리그도 치러야 한다. 코리아컵 승리를 통해 분위기를 바꾸고, 내부 경쟁을 이끌 스타까지 찾는 게 이번 경기의 목표다. 코리아컵 홈경기를 맞아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다. 이정호 감독의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장을 축하하는 '커피차'가 1번 게이트 N석 뒤쪽에 자리할 예정이다. 광주FC는 팬들에게 총 300장의 커피를 선물한다. 한편 이정호 감독은 지난 10일 울산 원정을 통해 100경기 출장을 이뤘고, 이날 이희균의 골로 1-0 승리를 거두고 50승을 달성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드래곤즈 하남, 멀티골로 11경기 무패 잇고 MVP

22라운드 충남아산에 3-2 승 '멀티골'로 전남드래곤즈의 11경기 연속 무패를 이끈 하남(사진)이 22라운드 MVP에 등극했다. 한국프로축구는 16일 K리그2 22라운드 경기를 평가해 베스트11을 발표했다. 공격수 부문에 이름을 올린 하남은 MVP로도 선정됐다. 하남은 지난 13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충남아산과의 경기에서 0-0으로 맞선 전반 26분 선제골을 장식했다. 충남아산의 빌드업 과정에서 발디비아이가 상대 실수를 유도했고 공을 잡은 하남이 오른발로 슈팅을 날렸다. 골키퍼 신승훈이 공을 쳐냈지만 뒤로 흐른 공이 충남아산 골대를 갈랐다. 하남은 전반 34분 멀티골을 완성했다. 골대 왼쪽에서 나온 김예성의 컷백을 하남이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해 다시 골망을 흔들었다. 하남의 멀티골과 전반 종료 직전 나온 최성진의 골로 3-0을 만든 전남은 후반 최지원과 김중석에게 실점은 했지만 리드를 지키면서 3-2로 승리했다. 11경기 연속 무패를 이룬 2위 전남은 부산이

파크에 0-2패를 기록한 1위 FC안양을 승점 2점 차로 추격했다. 5골이 터진 전남과 충남아산의 경기는 22라운드 베스트 매치로도 선정됐다. 22라운드 베스트 팀은 수원삼성의 차지가 됐다. 수원은 13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천안시FC와의 원정경기에서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32분 나온 이동규의 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뒤 후반 추가시간 터진 김상준의 골로 극적인 2-1 역전승을 거뒀다. 한편 K리그2 22라운드 MVP는 김천상무 소속으로 첫 골이자 팀의 4번째 골을 넣은 맹성웅에게 돌아갔다. 김천은 전북현대와의 홈경기에서 4-0 대승을 장식하면서 베스트팀이 됐다. <K리그2 베스트 11 > MVP: 하남(전남) ▲FW: 이규동(수원), 하남, 라마스(부산) ▲MF: 박승수(수원), 카즈키(서울E), 조지훈(전남), 바사니(부천) ▲DF: 이한도(부산), 오스마르(서울E), 서명관(부천) ▲GK: 김형근(부천) ▲베스트 팀: 수원 ▲베스트 매치: 전남(3) vs (2) 충남아산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조선대학교 하키부가 16일 '2024 한국대학실업연맹 회장배 남녀하키대회'에서 우승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조선대 하키부 제공>

조선대 하키부, 대학실업연맹 남대부 우승

이성민 최우수선수상·임도현 득점상 수상

조선대 하키 선수단이 충북 제천 청풍명월 하키경기장에서 열린 '2024 한국대학실업연맹 회장배 남녀하키대회'에서 남대부 우승을 차지했다. 조선대는 지난 13일 열린 8강에서 인제대에 7-3으로 승리한 뒤, 지난 15일 4강에서 순천향대를 5-3으로 제쳤다. 16일 열린 결승에서 한국체대를 만난 조선대는 2-1 승리를 거두며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임도현이 3쿼터 3분 첫 골을 터뜨렸고, 이어 4쿼터 3분 두 번째 골까지 넣으며 2-0을 만들었다. 4쿼터 4분에 한국체대가 만회골을 넣었지만 조선대는 최종 스코어 2-1로 승리하며 남대부 정상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 이성민이 최우수선수상을 받았고, 임도현은 총 득점상을 수상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페퍼스 박사랑·한다혜·이한비, 여자배구 대표팀 훈련 참가

페퍼저축은행 시페퍼스의 박사랑·한다혜·이한비가 유럽으로 전지훈련을 떠나는 '모랄레스 호'에 승선했다. 15일 대한배구협회는 오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크로아티아와 루마니아에서 진행되는 전지훈련에 참여할 대표 선수 14명을 발표했다. 페르난도 모랄레스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에는 ▲세터 박사랑·김다인(현대건설) ▲리베로 한다혜·박수연(흥국생명) ▲아웃사이드히터 이한비·강소휘(한국도로공사)·정지윤(현대건설)·이주아(목포여상) ▲아포짓 나현수(현대건설)·문지운(GS칼텍스) ▲미들블로커 이다현(현대건설)·이주아·최정민(이상 IBK)·정호영(정관장)이 선발됐다. 최근 막을 내린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에서 활약한 선수들이 주를 이룬 명단에는 새로 이름을 올린 선수가 눈에 띈다. 목포여상 이주아가 올해 U20(청소년 대표팀) 선발에 이어 성인 대표팀 태극마크까지 달게 됐다. 페퍼스의 이한비, 현대건설의 나현수도 대표팀 첫 발탁이다. 오는 24일 출국하는 대표팀은 27-29일 크로아티아 대표팀과, 8월 1-3일 루마니아 대표팀과의 친선경기를 통해 기량을 점검한다. 모랄레스 감독은 지난 3월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돼 2024 VNL를 이끌었다.



여자배구 대표팀이 오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크로아티아와 루마니아에서 진행되는 전지훈련에 참여한다. 사진은 VNL 3주차 두 번째 예선 경기에서 프랑스를 상대로 득점에 성공한 대표팀이 기뻐하는 모습. <VNL 제공>

그는 "VNL을 거치며 대표팀은 많이 발전했고 동시에 나아가야 할 부분도 확인했다"며 "이번 국외 훈련과 친선 경기는 내년 VNL과 대표팀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22, 2023 VNL 전패를 기록했던 한국은 올해 VNL에서 2승 10패로 대회를 마무리하며 15위에 올랐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지난 12일 곡성 문화체육관 등 7개 경기장에서 치러진 '제25회 곡성-거창 한마음생활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곡성군청 제공>

곡성·거창 한마음생활체육대회 성료

영·호남 우의·협력 다져

곡성체육회가 '제25회 곡성-거창 한마음생활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영·호남 우의와 협력을 도모했다. 지난 12일 곡성 문화체육관 등 7개 경기장에서 치러진 이번 대회는 자매도시인 거창군과의 스포츠교류를 통해 영호남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체전에는 게이트볼·그라운드골프·파크골프·공도·테니스·배드민턴·축구 7개 종목, 곡성과 거창 선수단 440여명 및 관계자가 참여했다.

양 지역 선수단은 친선경기 외에도 이벤트 쿼츠 등을 통해 지역명소, 특산물 등을 공유하며 우의를 다졌다. 이날 개회식에는 이규동 곡성군수 권한대행, 구인모 거창군수, 강덕구 곡성군의회 의장, 이재운 거창군의회 의장, 김홍규 곡성체육회장, 유인환 거창체육회장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상생발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한편, 곡성-거창의 한마음생활체육대회는 지난 1999년 거창에서 시작돼 올해 25년째를 맞았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즐거움 문화산책

광주시립오페라단 제15회 정기공연 | 콘서트 오페라
가족 오페라 (신데렐라)
일시 : 2024-07-26(금) 19:30
2024-07-27(토) 15:00, 19:30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 2
문의 : 062-412-2502

GAC 공모전시 UBUNTU : 장원석·박일광
일시 : 2024-07-12(금) ~ 2024-08-1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